

3개의 전시...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다

'일상침화'·'하늬풍경'·'틈이 내게...' ACC 개막...순수회화·설치미술 감상 한국·아시아 대표 작가들 참여 전시

'일상침화',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하늬풍경'. 선선한 가을 초입 도심 곳곳에서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일년 내내 전시와 공연 등이 열리는 곳이다. 유현준 건축가(홍익대 교수)가 얼마 전 '한국에서 꼭 봐야 하는 건축 TOP3' 중 하나로 꼽은 ACC는 건축적인 미와 아울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다.

예술 작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전시가 ACC에서 개막돼 눈길을 끈다.

특히 3개의 의미있는 전시 '일상침화',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하늬풍경'이 동시에 관객들을 맞고 있다.

먼저 한국과 서아시아를 대표하는 회화 작가 6인의 예술적 궤적을 담은 '일상침화'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화가들의 작품을 만난다. 국내 작가 김한기를 비롯해 오지호, 천경자, 임지순 작품을 볼 수 있다. 천경자 '귀로'와 '그라나다의 도서관장', 오지호의 '무등산특이 보이는 구월풍경', 임지순 '기울과 여인'의 명작이 깊이와 아우라를 선사한다.

국의 작가로는 시리아와 레바논의 근현대 작품이 포함돼 있다. 파테 무다레스의 '최후의 만찬', 아민 엘 바샤의 '아미 트라야치비에서'는 관객들로 하여



ACC에서는 예술작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3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은정의 '모두의 나무'를 감상하는 관람객들.

금 이국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다.

전시는 20세기 제국주의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동·서아시아 예술가들이 서양의 다양한 화풍을 실험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이룬 작품을 살펴본다. 아시아 대륙 양 극단에서 식민지라는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고유 기후, 풍토, 문화 등에서 서로 고유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전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복합전시6관에서 열린다.

'틈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는 2인 유망작가의 ACC 공모 전시다. 전시는 올해 말까지 예술극장 로비에서 열린다.

ACC는 지난 2월 '틈'을 주제로 한 작가 공모에서 이은정, 유지원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두 작가의 작품은 틈의 공간적, 시간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은정의 '모두의 나무'는 나무 이미지를 인쇄하

고 그 사이사이를 바느질로 봉합해 '틈'을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틈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를 마련, 연대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지원의 '판타스마고리아'는 겹겹이 쌓은 건축용 특수 판지를 찢거나 뜯어 파편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인위적인 틈을 만들어 자본주의의 환영에 갇힌 이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하늬풍경'은 한국, 중국, 일본작가 11명(팀)과 함께 ACC 야외일대를 넘나들며 기후 위기라는 동시대 현안을 다루는 전시다. 기후위기에 당면한 동시대인의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을 제시한다.

야외공간은 원경, 중경, 근경이 공존하는 한 폭의 그림이 돼 기후위기 시대의 다층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부 자연 그대로의 풍경, 2부 인간에 의해 변화가는 풍경, 3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는 주제로 구성해 설치미술, 영상, 새활용(업사이클링) 가구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하늬풍경'은 어린이를 위한 쉬운 글 해설 홍보물을 제공한다. 오는 11월 19일까지 ACC야외 일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에 개막한 3개의 전시는 각기 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간을 초월해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며 "무엇보다 순수 회화와 설치 미술 등 각각의 장르를 ACC의 특색있는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경자 작 '그라나다의 도서관장'



스튜디오1750 '세기의 계절'

예술가들의 나이들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

광주여성가족재단, '아트토크' 마무리...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 공유

나이 드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예술가들에겐 영감의 원천이 되곤 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래·이하 여성가족재단)은 9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3회에 걸쳐 연속 기획한 '나이 들은 나도 처음이라'를 여성가족재단 3층 은세암에서 마무리했다.

12일 오전에 열린 '아트토크'는 연속 기획의 마지막 자리였다. 이날 '죽음은 나의 힘, 나이는 나의 영감'이라는 주제로 두 명의 광주지역 여성 아티스트를 초대해 예술과 나이 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회자는 지역서점 소년의 서 대표 임인자.

프로그램은 '아트토크'라는 기획에 맞게 예술가들의 나이들이 예술적 영감의 원천임을 확인하는 자리

였다. 대표적인 작업물 및 근작을 공개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웅숭깊은 담론을 공유했다.

먼저 김신은주 미술작가는 전남도청에 전시했던 '패치워크(조각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당시 많은 광주시민들이 모여 조각보를 연결하고 '관계'의 진의를 환기했던 작품으로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그는 패치워크가 '인간과 비인간들이 수많은 시간적 리듬으로 관계하는 생태적 얽힘의 관계망'인 것처럼 나이 들은 '존재들과의 관계 확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프로덕션허미 대표 임현옥 감독은 작업물 '기억의 집'을 공개했다.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광주 내 공간들을 돌아보고 그 의



김신은주(왼쪽부터), 임인자, 임현옥.

미를 반추해 보는 작품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 감독은 "부친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한함을 느꼈다"며 "아이에게 DNA를 남기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밖에 인간의 탄생과 소멸을 다룬 '장작불'을 남기는 것도 가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창제작 뮤지컬 '얼쭈' 공연 장면.

<ACC 재단 제공>

뮤지컬 '얼쭈' 나주 문화소외계층 위한 무대

ACC재단,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창제작 뮤지컬 '얼쭈'는 지난 2018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10만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 '봄봄', 오영수 '고무신' 등 한국 명작 단편소설을 모티브로 시대에 맞는 민요와 한국무용 등을 결합한 가족 뮤지컬이다.

뮤지컬 '얼쭈'가 나주지역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대에 오른다.

ACC재단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오는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창제작 뮤지컬 '얼쭈'를 선보인다.

극을 이끌어가는 유쾌 발랄 당나귀 '판당'을 비롯해 가야금, 피리 등 전문 악사들의 국악 라이브 연주는 생동감을 선사한다. 특히 첫사랑에 대한 인간 내면의 심리를 풀어내는

방식은 이채롭다. 유쾌한 폭소, 아련한 눈물로 표현되는 내면 심리는 배우들의 뛰어난 노래와 수준 높은 연기의 결합으로 완성도를 높인다.

ACC재단과 한전간 체결한 'ACC 콘텐츠 교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공연에는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8개 공공기관이 공동 협력으로 참여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어른들에게는 옛 시절의 추억을, 청소년들에게는 유명 소설 작품을 뮤지컬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만큼 사회적 가치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무료이며 ACC 누리집에서 예매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탠딩에그 'Say Yes' 뮤직비디오 갈무리.

어쿠스틱 음악이 주는 잔잔한 울림

'스탠딩에그 콘서트' 1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스탠딩에그는 지난 16년 '여름밤에 우린'을 발매한 뒤 전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다.

드라마 '힘겨운 사랑', '역도요정 김복주'와 최근 개봉한 영화 '여름날 우리' 등 다수 작품 OST에 참여해 특유의 음악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스탠딩에그의 어쿠스틱 음악이 주는 잔잔한 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은 기획공연 '스탠딩에그 콘서트 Romantic holiday'를 오는 15일(오후 7시 30분) 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지난달 '그댄 걸 알지만' 등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탠

딩에그의 광주 무대라는 점은 이목을 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벌어진 만큼', '무슨 생각해', '친구에서 연인', '들어줄래' 등을 선보인다. 특히 'Little star'와 '오래된 노래'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곡이다. "오래전에 함께 들던 노래가 / 발걸음을 다시 멈춰 서게 해"라는 노랫말은 서정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듯하다.

이외에도 '무지개', '어제의 우리들', '데리러 갈게', '너라면 괜찮아', '나는 어떡해'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자세한 내용은 전당 측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